

■제29회(2023년) 법무사 상법기출 총평■

-제공: 하영태 박사-

I. 인사말

안녕하세요. 상법전임 하영태 입니다.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. 2023년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. 아래의 내용은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.

II. 상법 기출 총평

1. 난이도 및 출제경향

◆2023년(29회) 상법문제는 2022년(28회)에 비교하면 난이도는 유사하지만, **보험법에서 익숙하지 않는 지문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으로 평가된다. 다만 정답 지문은 평소 강조하던 내용에서 출제되어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26문제는 무난히 풀었으리라 판단된다.** 문제의 내용도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문(판례+조문)이 대부분이고 일부 최근 판례(필자 제공)에서 모두 출제(정답은 아니지만 지문으로 구성됨)되었다. **2~3개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.** 따라서 **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를 전제하여 작년과 비교해보면 상법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**

◆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 과목이 되리라 생각된다.

◆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.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

2. 출제유형 및 범위

◆2023년(29회)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조문문제, 판례문제, 조문판례혼합문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. 특이한 점이 없이 평소출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.

◆출제의 범위는 상법 전반에 대하여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, 매년 문제의 수는 주제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. 아래에 구체적인 출제문제의 수를 도표로 표시하였다.

♣특이점: 29회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**보험법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다.**
보험법을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수험생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.

III. 수험전략

◆상법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(학설논쟁)는 출제되지 않으며, 주요조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.

◆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다.

- ◆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 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.
- ◆학원 등(강사)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을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

IV. 별표: 상법기출 분석표

출제파트 (문제수)	출제내용
상총(4)	-상인과 상행위 -지배인 -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-상업등기의 효력
상행위 (3)	-상인간 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칙 -대리상 -운송주선업
회사(16)	-회사법 통칙(법인격 부인 등) -합명회사 -유한회사 -주주평등의 원칙 -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-주주총회 -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-상법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 -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 -주식회사의 감사 -신주발행 -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-중간배당 -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·등사권 -전환사채 -합병
보험(5)	-보험통칙 -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권 등 -손해보험의 통칙 -중복보험 -보증보험
해상(1)	-해상운송인
어음수표(1)	-어음법 종합문제
합계	30문제